

# 10~15세기 이슬람의 메카 순례 경로와 티무르조의 순례 부흥 노력\*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본 논문은 10~14세기에 이슬람권 동부에서 메카로 향했던 순례자들의 경로 및 그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고, 14~15세기에 이슬람권 동부를 장악했던 티무르조가 자국민의 순례 활성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슬람권 동부 주민들의 순례는 메카와 그를 둘러싼 여러 국가의 정치적 상황 및 외교관계에 크게 좌우되었다. 티무르조의 사투르는 메카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두 성지의 보호자'로 자리매김했던 맘룩조와 우호관계를 맺었고, 이를 통해 자국민이 순례를 허락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국민에게 순례길의 안전 및 물자 제공을 보장하는 공식 문서를 발급하였고, 그들이 메카에서 물자를 얻을 수 있도록 와크프 제도를 이용하여 자선을 베풀기도 하였다.

주제어 순례, 메카, 티무르조, 맘룩조, 카오바의 덮개

## I. 서론

이슬람권의 동단(東端)인 중앙아시아가 이슬람권으로 편입된 시기는 쿠타이바 이븐 무슬림(Qutayba ibn Muslim, 669~715/6)의 소그디아나 정복으로 편년된다. 물론 그가 사망한 이후 한동안 소그디아나는 본래의 이교도 통치자에게 돌아갔으나, 8세기 중반에 압바스조가 세워지고, 특히 751년 탈라스 전투에서 중국의 군대를 물리친 후 이슬람 세력은 이곳에 대한 통치를 회복하였다. 그 이후에 중앙아시아는 압바스조에서 파견한 후라산 총독의 지배하에 있다가, 9세기 말에는 부하라에 수도를 둔 페르시아계 사만조의 지배를 받았으며, 10세기 말에 투르크계 왕조인 카라한조와 가즈나조가 사만조를 협공하여 멸망시킴으로써 본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3068694).

격적으로 투르크 정권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이슬람권의 동부는 이슬람권의 중앙부에 위치한 두 성지(메카와 메디나를 포함한 히자즈) 및 우마이야, 압바스, 파티마 칼리파조의 수도가 있었던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와는 초기부터 사뭇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 전개는 이들의 삶의 여러 방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 하나가 무슬림들의 5대 의무 중에 하나인 메카 순례다. 전근대 무슬림들은 메카 순례를 위해 건조한 사막과 황량한 초원을 통과하여 아라비아반도 가운데에 위치한 메카까지 가야 했는데, 도중에 혹독한 날씨나 자연환경, 노상강도, 전쟁, 이교도들의 방해 등 다양한 변수에 부딪혔다. 이러한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부터 무슬림들은 순례 전용 카라반을 운영해 왔다. 메디나에 거주했던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의 공동체가 단체로 메카를 순례했던 관습에서 비롯된 메카 순례 카라반은 631년에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직접 주재했고, 632년부터는 칼리파에게 인솔 의무가 지워졌다(김능우, 2023: 104). 우마이야조에서는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칼리파의 순례 카라반이 출발했고, 압바스조에서는 쿠파 혹은 바그다드에서 칼리파의 순례 카라반이 운영되었다. 또한 이집트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순례 카라반이 운영되었다.

그런데 이슬람권 동부에서 출발하는 카라반의 존재는 사료에서 좀처럼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10세기의 지리학자 이븐 하우칼(Ibn Ḥawqal)은 자신의 지리서에 이슬람권의 여러 지방에서 메카/메디나까지의 거리를 기록했는데, 그 지방은 쿠파, 바스라, 바레인, 락카, 다마스쿠스, 팔레스타인, 이집트, 마그리브(북아프리카), 아덴(예멘), 오만 등이다. 이 기록은 압바스조의 성세(盛世)에 아라비아반도를 둘러싼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북아프리카의 여러 지방에서 순례 카라반이 얼마 만에 성지에 도착하는지 보여 주는 기록인데(Peters, 1994: 72),<sup>1</sup> 여기에 이란과 중앙아시아 등 이슬람권 동부의 지명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북아프리카의 경우에도 그 드넓은 지역을 ‘마그리브’라는 하나의 지명으로 언급하기는 했

<sup>1</sup> 이븐 하우칼은 각 도시에서 메카/메디나까지의 거리를 ‘단계(Stage)’의 단위로 산출했는데, 페터스에 의하면 ‘단계’란 카라반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 단위를 의미한다. 고고학 발굴 연구나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카라반 경로를 따라 숙소가 건설되어 있으며, 사람과 운송동물이 마실 수 있는 우물 혹은 수로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숙소 및 제반시설이 각 ‘단계’마다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으나,<sup>2</sup> 이란 및 그 동부에 대해서는 그 존재조차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그가 아나톨리아 남부의 누사이빈 출신이라 이슬람권 동부의 상황을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10세기 이슬람권의 정세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이란에는 시아파 정권인 부이조가, 중앙아시아에는 사파르조-사만조 등의 토착 왕조가 들어서면서, 순례를 장악했던 압바스조와 이들의 관계가 악화되어 길이 단절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sup>3</sup> 그러나 아직 이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근세 이전에<sup>4</sup> 이슬람권 동부의 메카 순례 경로 및 그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 요인을 확인하고, 이슬람권 동부의 정권인 티무르조가 순례 활성화를 위해 취한 여러 조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I장에서는 11~14세기의 몇몇 기록에 나타난 이슬람권 동부 순례자의 메카 순례 경로와 그에 영향을 끼친 정치적 요인을 확인하고, II장에서는 15세기에 티무르조가 자국민의 메카 순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어떤 외교적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티무르조가 자국민 순례자를 돕기 위해 취했던 다른 방면의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sup>2</sup> 메카에서 북아프리카(마그리브) 순례 카라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슬람권 최초의 순례 여행기인 나시르 쿠스라우의 『여행의 서』부터 보인다. 그는 1049년에 행한 세 번째 순례 때에 마그리브에서 온 카라반과 메카인 사이의 충돌로 인해 2,000명의 마그리브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Khusraw, 2001: 79). 또한 13세기에 메카에 도달한 마린조 왕모(王母)의 경우 나무가마(Mahmal)을 앞세워 많은 모로코인들과 함께 왔고, 자말 앓 딘이라 불리는 인물이 이 모로코 순례단의 왈리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일종의 체계적인 순례 카라반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al-Hanbali, 2002: 487). 한편 16세기 이후 북아프리카 카라반의 존재에 대해서는 수라이야 파로키(Suraiya N. Faroqi)의 연구 『순례자들과 술탄들(Pilgrims and Sultans)』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순례 안내서 『순례자들의 동료(Anīs al-Ḥujja)』의 미니어처 중에 미나에 있는 북아프리카 전용 캠프촌에 관한 그림이 존재한다.

<sup>3</sup> 예를 들어 시스탄에서 시작되어 현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일대를 장악했던 페르시아계 왕조인 사파르조가 압바스조의 가신국이었던 타히르조를 정복하자, 압바스 칼리파 알무오타미드(al-Mu'tamid, r. 870~892)는 후라산과 마와라안나흐르 지역 순례자들을 선동하여 사파르 군주에게 반역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Kamali, 2023: 137).

<sup>4</sup> 본 연구에서 시대적 범위를 근세 이전으로 한정한 이유는, 중앙아시아인의 메카 순례에 관한 기존의 연구 중에 근세와 그 이후(16세기 이후)를 다루는 몇몇 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2012년에 독일에서 발간된 『중앙아시아 순례자들: 메카 순례 경로,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히자즈를 오가는 신실한 방문자들(Central Asian Pilgrims: Hajj Routes and Pious Visits between Central Asia and the Hijaz)』이 있다.

## II. 이슬람권 동부의 순례 경로와 정치적 영향

아시아·아프리카 대륙 동·서에 넓게 퍼져있는 이슬람권을, 지리 및 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시리아 이서 지방을 서부, 이라크 이동 지방을 동부로 구분했을 때 이슬람권 동부 주민의 순례에 관한 기록은 전술한 이븐 하우칼의 기록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더욱이 순례 ‘경로’와 같이 자세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인데, 순례 경로를 확인하려면 연대기 역사서나 합동전기와 같이 순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보다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슬람권 동부 주민의 순례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초기 자료 중에 현존하는 최초의 메카 순례 여행기, 『여행의 서(Safar-nāma)』<sup>5</sup>가 있다. 『여행의 서』의 저자는 가즈나 조, 셀주크조의 관료이자 이스마일리 교파의 선교사(Dā‘ī)였던 나시르 쿠스라우(Nāṣir Khusraw)이다. 그는 투르크계 정권의 타직계<sup>5</sup> 관료로 세속적 명성과 부와 음주를 누리는 삶을 살다가, 40세가 되던 해인 이슬람력 437년(1045~1046)에 끼블라 방향을 가리키는 한 사람에 대한 꿈을 꾸고는 메카 순례를 결정했다. 당시 발흐에 거주 중이었던 그는 즉시 메르브로 가서 휴가를 청하고, 동생과 힌두인 노예와 함께 3인의 단출한 순례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3년간 카이로에 머무르며 학업과 함께 네 차례 메카 순례를 하고, 튀니지, 수단 등 북아프리카 일대를 여행한 후 7년 만인 이슬람력 444년(1052)에 발흐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이스마일리 교파의 후라산 선교사로 활약했으나, 이 종파가 수니파의 부흥을 강조했던 셀주크조에서 탄압받았기 때문에 결국 바닥산 산지의 암간으로 달아나야 했으며, 그곳에서 이스마일리 교리에 관한 많은 교리서와 시를 남기고 사망했다.

그의 2~4번째 순례는 모두 이집트에서 카이로 카라반을 따라 메카로 향했다. 그러므로 이슬람권 동부 주민의 순례경로를 보기 위해서는 발흐에서 메카로 직접 간 첫 번째 순례와, 마지막 순례 후 되돌아가는 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메르브를 출발하여 이란 북부를 관통한 후 반 호수 근처의 기독교도 지역 및 디야르바크르, 시리아를 거쳐 메카로 향했는데, 이때 그는 대부분의 순례객이

<sup>5</sup> 타직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슬람권 동부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등지에 거주하며 페르시아어(타직어)를 사용하는 주민을 지칭한다.

이용하는 시리아 카라반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동하여 예루살렘과 헤브론까지 순례한 후, 그곳에서 메카로 향하는 소규모 도보 순례단에 합류했다. 그런데 그의 기록에 따르면 그해(이슬람력 438년/서력 1047년)에 메카에는 어느 곳에서도 순례 카라반이 오지 않았다. 대신 ‘아랍인 중에 위험한 사람들’이 메카에 가득 차 있었으므로, 그는 제대로 된 순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다. 나시르 쿠스라우는 3차 순례 때에 만난 후라산 출신의 6인 순례객의 사례도 소개했는데, 그들은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건너가 배를 통해 제다, 메디나를 거쳐 메카에 이르는 복잡한 순례 경로를 택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나시르 쿠스라우나 후라산 6인 순례객 모두 이라크 카라반이 출발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시리아까지 왔다는 점이다. 압바스조에서 칼리파나 그의 대리인이 이끄는 공식 순례 카라반의 경로였던 이라크-메카 경로는 이슬람권 동부 주민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으나, 이들은 이라크 카라반을 이용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시리아 카라반도 이용하지 않았는데, 나시르 쿠스라우의 경우 시리아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순례했기 때문에 이라크 카라반을 이용하지 않은 것은 그의 자발적 선택이라 볼 수도 있으나, 후라산 6인 순례객의 경우는 시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집트로 향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순례를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이처럼 복잡한 경로를 택했던 이유는 나시르 쿠스라우가 말했듯이 당시에 어느 곳에서도 순례 카라반이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카라반 부재의 여파는 6인 순례객 중에 2인의 목숨을 앗아 가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으며, 나시르 쿠스라우의 귀국 길 역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나시르 쿠스라우는 4번째 순례를 마치고 메카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관통하여 바스라로 향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조국인 셀주크조가 당시에 이란 전역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란으로 가기 위해서는 메카에서 바스라로 가서 걸프만을 건너야 했는데, 당시에 바스라는 카르마티 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스마일리의 일파로 10~11세기에 아라비아 동부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카르마티 인들은 순니 무슬림에 대한 강한 반감을 무장 활동으로 표출했는데, 특히 930년 메카를 침략하여 카오바를 약탈하고 잠잠 우물에 시신을 빠뜨린 사건으로 악명을 떨쳤다. 이들의 영역이 바스라나 바레인 등 아라비아 동부 주요 도시를 포

함하고 있었으므로, 아라비아 반도를 동서로 관통하는 이라크 카라반은 이들의 가장 큰 목표물이었다. 물론 나시르 쿠스라우가 순례를 행할 무렵에는 카르마티 세력이 이전에 비해 잠잠해진 상태였는데, 이는 같은 이스마일리계 시아 왕조인 파티마조가 압바스조 대신 메카 순례의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파티마조는 북아프리카 중서부 이프리카야에서 10세기 초반에 등장했다가, 969년에 압바스조의 가신국이었던 이집트의 이크시드조(Ikshidid)를 몰아내고 카이로를 장악했으며, 특히 같은 이스마일리계 카르마티 인들을 단속함으로써 메카 순례의 안전을 보장하는 강력한 보호자로 자리매김하였다(Brett, 2017: 108-109). 반면에 당시 압바스조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어, 이란의 북부 산악지대에 거주했던 다일람계 군사세력으로 이란 남부의 시라즈를 수도로 삼고 945년 바그다드를 침공했던 부이조에게 군사적으로 의존한 상태였다(Kamali, 2023: 157). 그리하여 10세기 후반부터 파티마조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출발하는 순례 카라반이, 압바스 칼리파를 대신하여 칼리파의 의무였던 카오바의 뒷개(Kiswa)를 가지고 매 순례 시기마다 순례자들과 함께 히자즈로 향했다. 또한 파티마 칼리파는 메카와 메디나를 점유하고 순례의 보호자를 자처했던 하심가문 출신의 아미르 샤리프(Amir Sharif)에게 매년마다 급여를 제공했는데, 이는 명목상으로는 성지 보호 및 순례자의 안전과 의식주 후원을 위한 금액이었으나, 실제로는 파티마조와의 연맹의 대가나 다름없었다. 이 시기 아미르 샤리프는 시아파 신앙을 갖고 있었으므로, 같은 시아파인 파티마조와 연합하여 그의 정통성 강화에 일조하였던 것이다.<sup>6</sup>

<sup>6</sup> 968년에 압바스 칼리파의 실권이 감소할 무렵, 히자즈 일대에는 이맘 하산의 후손이 '샤리프'라 자칭하며 그 일대를 통치하는 샤리프 정권이 들어섰다. 이는 파티마조가 이집트를 점령하기 1년 전의 사건인데다, 샤리프 정권의 시조가 자이디 시아계였기 때문에 샤리프 정권은 파티마 조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샤리프 정권은 파티마 칼리파의 이름을 쿠틀바에서 불렀으며, 반대로 파티마조는 샤리프 정권에 선물과 곡식을 실은 배를 정기적으로 파견하였다. 이후 샤리프 정권은 20세기 초에 폐지될 때까지 두 성지를 관리하고 순례 카라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의 여러 유목 부족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대가로 이슬람권의 세속 정권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이때 만일 둘 이상의 정권이 이슬람권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면 샤리프 정권은 그 여러 정권 사이를 줄타기하며 다양한 출처의 자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로는 당대의 이슬람권 국가 중에 강력하면서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국가가 성지 및 샤리프 정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 국가의 술탄은 파티마 칼리파처럼 샤리프 정권에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군사적 안위를 보장하는 대신 샤리프 정권으로부터 당대 무슬림 공동체의 수장이라는 정통성을 부여받았다. 이처럼 강력한 술탄국은 주로 이집트-시리아를 차지한 국가,

이 시기부터 샤리프 정권이 사라지는 20세기 전반까지, 샤리프 정권이 술탄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메카를 찾은 순례자들 앞에서 그 군주의 정통성을 선언하고, 금요 모스크에서 쿠틀바에 해당 술탄의 이름을 올리고, 동전을 그의 이름으로 주조하고, 아라파트 산에 그 국가의 깃발을 걸고, 그 군주가 파견한 카라반과 함께 파견한 나무가마(Mahmal)<sup>7</sup>를 다른 가마보다 좋은 자리에 배치하고, 그들이 제작한 카오바의 덮개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티마조는 본래 압바스조의 공식 순례경로였던 이라크-메카의 순례길을 되살릴 이유가 없었다. 나시르 쿠스라우나 6인의 순례객처럼 카라반 없이 직접 찾아오는 순례객을 막을 수는 없었으나, 적대 관계였던 순니 무슬림들과 그 수장인 압바스 칼리파의 순례를 위해 편의를 봐줄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이 시기 압바스조가 메카 순례에서 영향력을 상실했음은 나시르 쿠스라우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카 도시 내에는 후라산과 마와라안나흐르와 이라크와 그 외의 지역에서 온 각 도시 주민들을 위한 거주지(Hospices, Sarā)들이 있었으나 그 대부분은 파괴되고 황폐화되어 있었다. 바그다드의 칼리파는 그곳에 훌륭한 건축물을 많이 지었으나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 일부는 파괴되었으며 일부는 개인의 소유가 되었다(Khusraw·Thackston, 2001: 37).

위의 기록에 의하면 메카에 있던 압바스 칼리파의 건물 및 이슬람권 동부 순례자들을 위한 순례 인프라가 크게 파괴되어 있었는데, 이는 메카에 대한 압바

즉 파티마조부터 장기, 아이유브, 맘룩, 오스만으로 이어지는 이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집트 카이로와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출발하는 순례 카라반은 비교적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Mortel, 1987: 455-472).

<sup>7</sup> 이것은 본래 귀족 여성을 메카로 운반하기 위해 만든 화려한 장식의 가마로, 낙타 위에 얹어 사용하였다. 그런데 13세기 무렵부터 이슬람권의 세속 군주들이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속을 비워둔 채로 카라반에 함께 파견했다. 현존하는 자료에 따르면 가장 이른 ‘정치적’ 의미의 나무가마는 맘룩 술탄 바이바르스가 1266년에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그가 십자군을 시나이반도 및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몰아내어 수에즈에서 메카로 가는 이집트의 육로 순례길을 열었고(1262), 1258년 몽골의 바그다드 함락 이후 압바스 칼리파가 카이로로 이주하면서 맘룩조가 종교적으로 큰 권위를 얻게 되자 이를 상징하는 기념물을 파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예멘 라솔조와 홀레구 울루스 등에서 유사한 나무가마를 파견하며 공식 제도로 정착했다(Jomier, 1991: 44-46).

스 칼리파의 영향력 상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라크 카라반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며,<sup>8</sup> 이는 지리적으로 이라크 카라반을 이용하는 것이 편했던 이슬람권 동부 주민들의 순례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인용문에서처럼 유독 메카 내의 후라산과 마와라안나흐르, 이라크 주민의 거주지가 황폐화되었던 것이다.

결국 나시르 쿠스라우는 이븐 하우칼이 100여 년 전에 기록한 것과는 달리, 메카에서 바스라로 가는 순례 카라반을 만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메카와 바스라 사이에 거주하는 여러 아랍 부족민에게 매년 비싼 대금을 제공해 가며 이동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했다.<sup>9</sup> 그는 메카에서 바레인 근처의 라흐사까지 낙타로 13일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실제 그가 라흐사를 거쳐 바스라에 도착하기까지 7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이란으로 건너간 후에도 그는 일반 카라반에 합류하거나, 각 지방의 통치자에게 호송을 부탁하곤 했는데, 도중에 각 지역에서 토착 세력 간의 국지전이 벌어질 때마다 이동을 멈추고 전투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예를 들어 니사푸르-주즈잔에서 발생한 국지전 때문에 그는 카인이란 도시에서 한 달을 머물러야 했다. 이처럼 순례 전용 카라반 없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순례자들은 다른 용도로 운영되는 일반 카라반을 이용하거나 개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 통치자에게 호송을 부탁해야 했는데, 이는 끊임없는 협상과 계속되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그리하여 나시르 쿠스라우는

<sup>8</sup> 이 시기 이라크 측에서 순례자들이 메카에 오지 않았음은 무함마드 이븐 아흐마드 파시(Muḥammad b. Aḥmad Fāsī)의 메카 역사서, 『사랑의 치료(*Sbafā' al-Garā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슬람력 430년(1039)에 이라크, 이집트, 샴에서 순례객이 오지 않았고, 이슬람력 432년(1041)에는 이라크에서 순례를 오지 않았으며, 이슬람력 437년(1046)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후 이슬람력 438년(1047)부터 이슬람력 452년(1060)까지 이라크에서 순례를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Nasab et al., 2016: 143).

<sup>9</sup> 나시르 쿠스라우의 기록에 따르면 메카에서 바스라 사이에는 하킴이나 술탄과 같은 군주가 없고, 다만 소규모 거점, 부족 단위로 라이스, 칼란타르와 같은 부족장, 훈장 등이 존재했는데 그들은 사실상 도적이었다. 이 도적들에게 재산과 목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각 부족의 안내인[Badraqa]과 협상하여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고 안전을 보장받은 후, 다음 부족의 안내인에게 인계되는 방식으로 통과해야 한다. 만일 이라크 카라반이 존재했다면 카라반을 이끄는 수장이 이 업무를 조직적으로 처리했겠지만, 나시르 쿠스라우는 이라크 카라반이 없는 상황에서 소규모 무리와 함께 이 절차를 거쳐 이동했기 때문에 아라비아 중앙부의 도시 팔라즈에서는 네 달이나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Khusraw, 2001: 43-45).

메카에서 발흐까지 약 일 년 반에 걸쳐 귀환했다.

이렇듯 나시르 쿠스라우의 순례 과정을 보면, 메카로 통하는 순례길은 다양하며 시리아(다마스쿠스), 이라크(쿠파 혹은 바그다드), 이집트(카이로)처럼 이슬람 성립 초기부터 카라반이 운영되었던 곳도 있지만, 각 지역 카라반의 실제 운영 여부는 메카와 그 주변 세력들의 대외 관계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 더욱이 이슬람권 동부처럼 메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순례자들은 자국의 상황 및 메카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타국의 상황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했다.

공교롭게도 나시르 쿠스라우가 귀국한 직후 그의 조국인 셀주크조는 부이조를 내쫓고 바그다드를 점령했으며, 압바스 칼리파를 내세워 이슬람력 455년(1063년)부터 이라크 카라반을 부활시켰다. 이후 약 100년 동안 셀주크조와 파티마조는 메카 순례를 둘러싸고 경쟁했으나,<sup>10</sup> 12세기 후반에 파티마 칼리파조가 아이유브조에 의해 대체되고, 셀주크조도 분열과 약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메카 순례를 둘러싼 경쟁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십자군이라는 변수로 인해 시리아 카라반 및 이집트 육로 카라반 경로가 폐쇄되었다(Peters, 1994: 90-91). 1183년에 순례를 행한 이븐 주바이르(Ibn Jubayr)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라크 카라반에 림 셀주크조의 술탄과 그의 딸, 모술 장기조 왕가의 여성, 호레즘 샤의 딸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븐 주바이르는 이 카라반에 이라크와 후라산 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Jubayr, 1952: 210-211).

이븐 주바이르가 순례를 행한 직후인 1187년에 아이유브조의 살라딘(Ṣalāḥ al-Dīn al-Ayyūbī)이 하틴 전투에서 승리하여 예루살렘 왕국을 함락시켰고, 곧바로 시리아 카라반을 재개했다(Sato, 2014: 133-139). 또한 아이유브조를 계승한 맘룩조의 바이바르스(Baybars)는 십자군의 잔존세력을 이집트 카라반의 경로에서 몰아낸 후 육로를 다시 열었다. 맘룩조는 파티마조의 선례를 따라 이집트 카라반을

<sup>10</sup> 예를 들면 이슬람력 457년(1065), 이슬람력 462년(1070)에 메카의 아미르 샤리프는 쿠트바의 첫 머리를 압바스 칼리파와 셀주크 술탄의 이름으로 장식했다. 그러나 칼리파 알카임(al-Qā'im)과 술탄 알프 아르슬란(Alp Arslān)이 사망하자 쿠트바의 첫머리는 파티마 칼리파의 이름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술탄 말릭샤(Malikshāh)가 사망했을 때에도 반복되었다(Dāwud Kāzīmī Nasab et al., 144).

공식 카라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집트 카라반의 경로는 다시금 메카 순례의 가장 중요한 경로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13세기 중반에 몽골제국의 홀레구 울루스가 바그다드를 점령하자 이라크 카라반은 다시 단절되었다. 이라크 카라반에 대한 홀레구 울루스의 공식적인 후원은 가잔 칸(Gāzān Khān)이 등극하기 전까지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가잔 칸은 개종 후 카으바 덮개와 아미르 샤리프에게 제공하는 급여 등을 파견했는데, 이는 시리아 원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메카에 대한 맘룩조의 종교적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행보였다. 그러나 시리아 원정은 실패로 돌아갔고, 가잔 칸이 파견한 이라크 카라반이 메카에 성공적으로 도착했다는 기록 또한 확인할 수 없다(Melville, 1992: 198-199).

홀레구 울루스에서 이라크 카라반을 지속적으로 후원했던 군주는 마지막 칸인 아부 사이드 칸(Abū Sa'īd Khān, 1316~1335 재위)이다. 아부 사이드 칸은 가잔 칸이나 울제이투 칸(Üljāyū Khān)과는 달리 맘룩조와의 평화협상을 이용하여 메카 순례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즉, 평화협상의 일환으로 이라크 카라반이 매년 칸의 나무가마와 함께 메카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할 것과, 칸의 이름이 쓰인 깃발이 맘룩 술탄의 깃발과 나란히 걸릴 것을 맘룩조에 요구했던 것이다. 이 요구는 받아들여졌고 이라크 카라반은 1320년부터 칸이 사망할 때까지 10차례 가까이 파견되었다(Melville, 1992: 202-209). 이 시기에 이라크에서 운영된 카라반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 인물은 이븐 바투타(Ibn Baṭṭūṭa)이다. 그는 1327년 메카를 순례했는데, 이때 ‘이라크, 후라산, 파르스, 그 외에 다른 동쪽 땅의 순례자’들이 이라크 카라반에 모였다는 기록을 남겼다(Peters, 1994: 75-76).

홀레구 울루스가 갑자기 멸망한 후, 이란과 그 주변지역은 몽골 및 토착 세력, 심지어는 극단적 종교 세력까지 등장하여 사분오열되었다. 그중에 바그다드를 차지한 것은 홀레구 울루스의 지배층을 구성한 주요 부족 중 하나였던 잘라이르부의 잘라이르조인데, 이들 역시 이라크 카라반을 운영했다. 이 시기에 이슬람권 동부 주민들의 순례에 관한 중요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슬람력 757년(1356~1357)에 작성된 『히자스로의 여행기(Risāla-yi Hījāziyya)』이다. 이 보고서는 야즈드 출신으로 카제룬과 야즈드에서 조직된 카라반을 이끌던 아부 알 아슈라프(Abū al-Ashraf)라는 인물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에 따르면 이란 각 지역

에서 온 순례 카라반 여럿이 슈시타르에 모여 거대한 카라반을 구축했고, 그 카라반은 슈시타르를 출발하여 바그다드로 향했으나 출발한 지 1파르상 만에 도둑 무리에 의해 약탈당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결국 일부 순례자는 순례를 포기했고, 순례의 지속을 희망했던 사람들은 바그다드를 경유하여 메카로 나아갔다. 이때 순례객들은 이라크-메카 순례길을 구성하는 34개의 역참에 있는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나 쉼터가 파괴되어 있고, 우물과 샘, 호수 등이 말라붙어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 이에 아부 알아슈라프를 비롯한 6명의 순례자는 ‘시리아와 이집트의 군주’에게 순례길의 상황을 알려 후원을 요청하고, 아랍인들로 하여금 순례 인프라를 정비하도록 독촉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al-Ashraf et al., 1989: 30-41).

이 『히자스로의 여행기』 역시 순례가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술했듯이 홀레구 울루스가 멸망한 직후인 이 시기에 이란 내에서는 다양한 세력이 각축 중이었고, 이에 치안이 불안정해져 순례길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슈시타르는 홀레구 울루스 시기에도 칸에게 명목상으로 복종했을 뿐, 실제로는 독자적 세력을 유지했던 토착 유목 세력의 땅이었다. 그러므로 여행기에서 단순 도둑 무리로 표현된 약탈자들이 사실은 이 지역의 지배 세력이 컸다. 이때 순례자들은 이라크 카라반 길의 보수를 맘룩 술탄에게 요청했는데, 이는 순례자들의 출신과는 상관없이 맘룩 술탄을 성지 및 성지 순례의 보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sup>11</sup>

한편 이슬람권 동부의 순례 경로에 관한 중요한 기록은 이 여행기의 마지막 보고서이다. 보고자는 ‘대 세이ihil 이슬람’이자 ‘선지자들의 왕’, ‘셰이크 중에 셰이크’라는 칭호를 지닌 헤라트 종교인 바드르 앓 딘(Badr al-Dīn)이었는데, 그는 ‘히자스로 향하는 카라반들(Qavāfi)이 헤라트와 부하라와 시라즈와 카제룬과 야

<sup>11</sup> 당시 맘룩조의 영역은 시리아-이집트였기 때문에, 파티마조처럼 이라크의 순례길을 굳이 관리할 필요는 없었다. 또한 잘라이르조의 영역은 유프라테스-티그리스 강 유역에 한정되었고 그조차도 주변국과의 관계로 인해 불안정했으므로 이라크 순례길을 관리할 여력이 없었다. 한편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들은 잘라이르나 인주 조처럼 맘룩조와 가까이 있어 정치적 위협이 되는 정권 출신이 아니라, 무자파르조나 카르트조, 델리술탄국과 같이 메카에서 멀리 떨어진 정권 출신이었다. 특히 이 정권들은 당시에 맘룩조가 데리고 있었던 압바스 칼리파에게 왕위를 형식적으로나마 인정받는 관행을 취했기 때문에, 맘룩조를 이슬람권의 종교적 패자로 여기고 있었다.

즈드와 카산과 아몰과 힌두스탄을 비롯한 각 방면에서 모여, 히자즈로의 영광스러운 여행을 출발하여 슈시타르 근처에 이르렀다'고 하였다(al-Ashraf et al., 1989: 43). 즉, 이 카라반은 이란의 각 지역뿐 아니라 인도(힌두스탄)와 후라산(헤라트), 중앙아시아(부하라)에서 온 순례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카라반을 구축하여 이란 서부의 슈시타르까지 왔고, 그곳에서 대규모 카라반을 재조직했던 것이다. 이러한 체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4세기 중반에 중앙아시아와 이란, 그리고 북인도까지 이슬람권 동부 주민들이 이라크 카라반에 합류하기 전에, 별도의 장소에서 각지의 소규모 카라반을 모아 대규모의 '타직인 카라반'을 구축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마그리브 카라반'이라고 불리는 북아프리카 순례단이 카이로 카라반에 합류하기 전에, 북아프리카의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순례자 무리들을 모아 마그리브 인들을 위한 카라반을 구축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 '마그리브 카라반'이 카이로 카라반과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메카 순례를 행했음은 일찍부터 사료적 증거가 있으나, 이란 및 그 동부 주민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타직인 카라반을 구축한 후 이라크 카라반에 합류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료는 극히 드물다.

결국 이 여행기는 이슬람권 동부 순례자들의 체계적인 순례 카라반 조직 현황과, 이들의 순례 경로인 이라크 순례길의 치안 및 인프라 파괴 현황을 동시에 보여 주는 아이러니한 자료다. 물론 이슬람권 동부 주민들의 카라반이 매년 정례적으로 운행되었던 것 같지는 않으나, 이슬람권 동부의 정치적 통일이 몽골제국의 쇠퇴와 함께 사라졌던 14세기 중반에, 이슬람권 동부의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세속정권에 속한 타직계 주민들이 메카 순례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순례 카라반을 구축하였음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치안은 매우 불안정하여 도적 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파괴된 순례길의 복구도 맘룩 술탄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이슬람권 동부를 아우르는 국가가 메카 순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면 주민들의 순례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발전은 다음 세기인 15세기에 비로소 이루어진다.

### III. 티무르조의 메카 순례 부흥을 위한 외교적 노력

영국 학자인 찰스 멜빌(Chales Melville)은 홀레구 올루스의 아부 사이드 칸이 맘룩조를 상대로 평화협상과 메카 순례의 정례화를 모색했던 과정에 대해 연구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가잔 칸이나 올제이투 칸도 한 두 차례 이라크 카라반을 파견했으나 그 목적은, 메카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시리아 원정 등 맘룩조와의 대결에서 승기(勝機)를 잡고자 함이었다. 반면에 아부 사이드 칸은 맘룩조와의 평화협상을 추진했고, 그 협상을 통해 이라크 카라반의 안정적인 파견을 모색했다. 이는 그가 이전 칸들처럼 순례 카라반을 단순히 대외 정책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멜빌은 이 시기에 몽골인 지배층의 이슬람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국가에서 군주가 순례 카라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곧 국내 여러 구성원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었다. 결국 이 시기의 순례 카라반은 대외 정책의 도구가 아닌, 국내 구성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Melville, 1992: 203, 211).

아부 사이드 칸의 이러한 정책은 수십 년 후에 이슬람권 동부의 패권을 차지한 티무르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티무르조의 15세기 전반 군주인 샤루흐(Shāhrukh)는 등극하자마자 와인을 강에 버리고 술집을 폐쇄하면서 “칭기스 칸의 야사를 버리고 샤리아를 취한다.”라고 선언했던 인물로 유명한데(Manz, 2007: 28), 이는 부친인 티무르가 몽골제국으로부터 계승한 정통성과 야사를 중시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이러한 퍼포먼스가 아부 사이드의 것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이다. 아부 사이드 또한 첫 번째 이라크 카라반을 파견할 무렵, 와인을 쏟아버리고 와인 그릇들을 부수었으며, 술집 폐쇄 명령을 내리고 외국 상인들에게 부과되는 불법 세금을 폐지하도록 명했다(Melville, 1992: 205). 이러한 유사성은 샤루흐가 아부 사이드의 선례를 참고하였음을 암시한다.

샤루흐가 아부 사이드의 노선을 따랐음은, 그가 맘룩조와의 협상을 통해 메카 순례를 추진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티무르조에서 메카 순례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카으바의 덮개를 둘러싼 티무르조-맘룩조 간의 20년에 걸친 갈등이었다. 본래 매 해마다 비단 덮개를 제작하여 카으바에 씌우는 영광은 무슬림 공동체를 통솔하는 지도자의 몫이었으므로, 우마이야, 압바스조와 파티

마조, 아이유브조를 거쳐 맘룩조에서 이 일을 해 왔다. 그런데 샤루흐가 1424년부터 그 덮개를 스스로 제작하겠다고 맘룩조에 수차례 사신을 보냈고, 맘룩조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말리카 데키체(Malika Dekkiche)와 같은 일부 학자는 샤루흐의 이와 같은 요구가 무슬림 공동체의 지도자 자리를 두고 맘룩조에게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카에 대한 맘룩조의 영향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맘룩조가 존속했던 약 300년 동안 홀레구 울루스뿐 아니라 예멘, 잘라이르, 카라코윤루, 아크코윤루 등 다양한 세력이 메카의 아미르 샤리프와 별도로 접촉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대신, 맘룩조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나무가마를 포함한 카라반을 파견하거나, 자신들의 군주 이름을 쿠틀바에서 부르게 하거나, 자국에서 만든 덮개를 파견하여 걸게 하는 등 맘룩조의 우위에 도전하는 시도를 꾸준히 이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맘룩조의 후원에 만족하지 않고 타 세력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여 별도의 후원을 얻으려는 아미르 샤리프의 노력과 맞물려 지속되었다. 그런데 샤루흐는 샤리프 정권과 별도의 관계를 맺지 않았고, 아미르 샤리프의 재정적 요구에도 긍정적으로 답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샤루흐가 파견한 덮개가 외부를 덮는 것이 아니라 카오바 내부에 덮는 덮개라는 점은, 그의 의도가 맘룩조의 우위에 도전하는 타 정권과는 사뭇 다름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데키체는 샤루흐가 이슬람권 및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맘룩조의 우위를 인정했으며, 샤리프 정권과 독자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순례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크게 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Dekkiche, 2014~2015: 247-272).

본 연구는 그의 결론 중에 전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샤루흐가 히자즈 지역에 대한 맘룩조의 우위를 인정한 것이 양자 간의 평화협상을 위한 포석이라면, 이 역시 순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샤루흐는 아부 사이드 칸과 마찬가지로 맘룩조와의 경쟁을 통해 종교적 권위를 제고하려는 여타 정권과는 다른 노선을 취했을 뿐, 순례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티무르조와 메카·맘룩조 간의 사신 왕래를 재검토하도록 하겠다.

우선 티무르조의 사서에서 아미르 샤리프가 파견한 사신에 관한 기록은, 데

키체가 이야기한 시점보다 십수 년 먼저 나타났다. 1398년, 티무르조의 사료에는 메카-메디나로부터 ‘사이드 무함마드 마디니(Sayyid Muḥammad Madīnī)’라는 인물이 두 성지의 모든 하킴과 귀족들의 서신을 가지고 와서 보고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Yazdī, 1387Sh./2008~2009: 887). 이때 티무르는 인도 원정을 마치고 귀환하여 신드강 유역을 지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신은 티무르가 인도 원정을 떠난 후에 사마르칸트로 도달했다가 인도로 보내졌을 것이며, 그렇다면 메카에서 이 사신을 파견한 시점은 티무르의 이란 5년 원정(1392~1396) 직후가 된다. 이란 5년 원정은 티무르가 본격적으로 아제르바이잔과 이라크 일대를 공격하여 그곳의 여러 세력들을 몰아낸 최초의 원정이므로, 메카의 아미르 샤리프가 사신을 파견한 이유는 이슬람권 중앙부에 새로 나타난 세력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메카의 사신이 티무르에게 정확히 어떤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요구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이후 1405년 무렵에 티무르가 카오바의 덮개를 만들기 위해 치수를 측정했으며, 그 다음해에 티무르의 아들이 이끄는 1만 명의 순례 카라반이 바그다드에서 올 것이라는 소문이 메카에 파다하게 퍼졌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라 보기는 어렵다. 티무르조의 기록에 따르면 이슬람력 805년(1402~1403)에 아나톨리아 정복을 마치고 조지아로 향했던 티무르는 진군 도중에 양 이라크 지역에 여러 왕자들을 배치했는데, 그중에 이라키-아랍 지역에 손자인 아부바크르 이븐 미란샤(Abūbakr b. Mirānshāh)를 배치했다. 이때 그는 아부바크르에게, 그해 가을에 바그다드의 카라유수프(Qarā Yūsuf Turkmān)를 격퇴하여 그다음 해에 ‘히자즈의 나무가마(Maḥmul-i Hījāz)’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Yazdī, 1387Sh./2008~2009: 1199). 이 시기가 이슬람력 805년 말(1402년 여름)이었으므로, 티무르의 계획은 이슬람력 806년 초(1402년 가을)에 바그다드를 장악하고 카라코운루의 군주 카라유수프를 몰아낸 후에, 이슬람력 806년 둘 히자 월(1403년 가을)에 맞추어 바그다드에서 나무가마를 앞세운 티무르조의 순례 카라반을 파견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아부바크르는 카라유수프의 형제의 목을 베고 바그다드를 잠시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나이로 70세가 넘었던 티무르가 1405년에 사망했고, 티무르조는 중앙아시아에서는 4년, 이란까지 포함하면 근 10년에 가까운 계승분쟁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와중에 아부바크르는 카라유수프에 의해 바그다

드를 상실하고 아제르바이잔으로 향하여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자신의 형제와 전쟁을 벌였으므로, 이때 티무르조는 순례 카라반을 파견할 여력이 없었다. 이때 맘룩조는 이라크에서 도달한 카라반을 열심히 탐색했는데, 그 안에 후라산인들이 있기는 했으나 그들과 티무르조와의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아미르 샤리프는 1414년, 다시 한번 티무르조로 사이드 압드 알라티프(Sayyid 'Abd al-Laṭīf)의 형제 사이드 압드 알카흐프(Sayyid 'Abd al-Kahf)라는 사신을 파견했다. 티무르측 사료에서는 그가 '고귀한 메카, 메카의 하킴(Makka-yi Sharīfa, Ḥākīm-i Makka)'이 보낸 사신이며, 각지에서 도달한 사신들과 함께 티무르에게 복종을 표하러 온 것이라고 서술했을 뿐, 이 사신의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Abrū, vol. 3, 1380Sh./2001: 564). 이때에 티무르의 아들 샤루흐는 이란 중서부에서 발생했던 왕자 이스칸다르(Iskandar)의 반란을 완전히 평정하고, 아들인 술탄 이브라힘(Sultān Ibrāhīm)을 비롯하여 자신에게 우호적인 조카들에게 이란 중서부의 각 도시를 분봉하고 수도인 헤라트로 되돌아온 상태였다. 즉 아미르 샤리프는 티무르조의 이란 강역에서 발생한 혼란이 봉합되고 최고 통치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자 지체 없이 그에게 사신을 파견한 것이다. 한편 4년 후인 1418년에도 메카의 사신이 샤루흐의 어전에 등장하는데, 이때는 '자인 앓 딘 압드 알하미드(Zayn al-Dīn 'Abd al-Ḥamīd)라는 인물이 메카의 왈리인 아미르 하산 아즈란(Amīr Ḥassan 'Ajlān)의 사신으로 도달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Abrū, vol. 4, 1380Sh./2001: 778). 이때에 샤루흐는 이란 북서부 아제르바이잔 등지에서 출몰 티무르조에 저항했던 카라코윤루를 원정하기 위해 디야르바크르까지 진격한 상태였다. 앞 사료에 등장했던 하산 아즈란은 1394년부터 메카의 아미르 샤리프였는데, 그는 티무르조의 중앙 군대가 이란 중서부로 진격할 때마다 사신을 보낸 셈이다.

그 후 1420년, 1421년에도 아미르 샤리프는 티무르조에 사신을 보냈는데, 이때 파견된 아미르 샤리프의 친척인 아흐마드 이븐 하산(Aḥmad Ibn Ḥassan)은 티무르조에 일정양의 금액을 요청했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Dekkiche, 2014~2015: 268-269). 이 기록이 티무르조의 사료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샤루흐가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메카나 맘룩조, 티무르조 사료 어디에도 티무르조로 파견된 아미르 샤리프의 사신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1424년, 샤루흐는 메카가 아닌 맘룩조에 사신을 파견했고, 그들의 요구는 티무르조에서 제작한 내부 덮개로 카오바를 장식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여타 정권이 카오바 덮개에 관한 요구를 주로 메카의 아미르 샤리프에게 하는 것과는 달리, 티무르조는 맘룩조에 사신을 보낸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당시의 술탄인 바르스바이(Barzbāy)는 이러한 티무르조의 요구에 격노하였고, 1436년에 도착한 티무르조의 8번째 사신은 구타하여 얼음물에 던져버리기까지 했다. 이 처사는 양국에 큰 문제를 야기할 뻔 했으나, 바르스바이 술탄이 사망하고 새로운 군주가 등극하면서 양국의 분위기가 일변하였다. 차기 술탄인 자크마크(Jaqmaq)는 샤루흐의 요청을 수용하여 결국 1444년에, 티무르조에서 파견한 덮개와 두 셰이크가 이끄는 티무르조의 대표단이 카이로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덮개는 카이로의 순례 카라반과 함께 이동하여 순례기간인 이드 아드하 때에 카오바 내부에 걸리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양국의 관계가 화해의 급물살을 타면서 티무르조의 순례도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그 첫 번째 사례는 티무르조에서는 이는 이슬람력 844년(1440~1441)에 이루어진 헤라트 종교인들의 순례다. 이 순례를 이끈 인물은 헤라트의 셰이흐 이슬람인 셰이크 바하 앓 딘 우마르(Shaykh Bahā' al-Dīn 'Umar)이고, 그와 더불어 10명의 참여자 이름이 역사서에 남아있으며, 그 외에도 헤라트 및 여타 지역 출신의 많은 종교인들이 이 순례에 참여했다고 한다(Samarqandī, 1372Sh./1993: 497-498; Khwandamir, vol. 4, 1994: 58). 이 순례가 이루어진 직후에 인도를 방문했다가 호르무즈를 통해 되돌아왔던 역사가 압드 알라자크 사마르칸디('Abd al-Razāq Samarqandī)가 남긴 기록을 보면, 848년(1445~1446)에 그는 시르잔에서 마울라나 샴스 앓 딘 무함마드 이스파키(Mawlānā Shams al-Dīn Muḥammad Isfākhī)라는 인물을 만났다. 이 인물은 셰이흐 이슬람의 카라반(Qāfalah)에 합류하여 히자즈로 갔다가 이집트로 갔고, 그곳에서 바닷길을 통해 호르무즈를 거쳐 헤라트로 가는 도중 시르잔에서 사마르칸디를 만났던 것이다(Samarqandī, 1372Sh./1993: 572). 이 기록으로 보아 844년 순례단이 '카라반'이라 칭할 만큼의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그중에 일부는 순례 후 바로 귀향하지 않고 이집트를 방문하여 그곳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444년에는 티무르조에서 제작한 덮개를 동반한 사신단이 맘룩조에 도착했다.<sup>12</sup> 이 사신단 역시 순례자들을 동반하였는데, 그 안에는 티무르의 부인도 포함되어 있었다(Dekkiche, 2014~2015: 255). 이는 맘룩조 측의 기록이고 티무르조 사료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그 당시까지 생존해 있는 부인이라면 티무르의 둘째 부인인 투만 아가(Tūmān Agā)일 가능성이 크다.<sup>13</sup> 이 사신단 중에 덮개를 가지고 카이로로 향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리아에서 출발하는 카라반에 합류하여 메카로 향했다.

이와 같이 1440년대 초에 맘룩조와 티무르조가 메카 순례를 둘러싸고 평화 관계를 이룬 후, 티무르조에서는 국가가 주관하는 순례 카라반을 여러 차례 조직했다. 그러나 전술한 초기의 카라반을 제외한 이후의 카라반에 관해서는 연대기 역사서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다른 장르의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 한 사례가 유명 종교인이자 시인인 압드 알라흐만 자미(ʿAbd al-Raḥmān Jāmī)가 이끈 1472~1474년의 순례 카라반이다. 이 순례 카라반에 관한 기록은 당대의 연대기 역사서인 『전기들의 벗(Habīb al-Siyar)』에는 없으나, 자미의 전기(Maqāmāt)와 그가 보낸 서신(Munshaʿā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티무르조가 맘룩조와의 평화 노선을 취한 것은, 티무르조가 처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예멘 라술조나 잘라이르, 코윤루 등 맘룩조와 경쟁을 벌였던 국가들이 카오바의 덮개나 깃발, 나무가마, 쿠트바 등의 상징적인 성과를 추구한 것은 메카를 찾는 각국의 순례자들에게 자국의 종교적 위상을 과시

<sup>12</sup> 티무르조의 기록에 따르면 이슬람력 843년(1039~1040)에 카이로에서 사신이 도달하였고, 그에 대한 답방으로 847년(1443~1444)에 아미르 잘랄 앳 딘 피루즈 샤(Amīr Jalāl al-Dīn Fīrūzshāh)와 사이드 샴스 앳 딘 무함마드 잠자미(Sayyid Shams al-Dīn Muḥammad Zamzamī)를 파견하여 덮개 파견의 세부 사항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848년(1444~1445)에 셰이크 누르 앳 딘 무함마드 알무르시디(Shaykh Nūr al-Dīn Muḥammad al-Murshidī)와 마울라나 샴스 앳 딘 무함마드 알아브하리(Mawlānā Shams al-Dīn Muḥammad al-Abharī)를 파견하여 덮개를 가지고 빠르게 메카로 가도록 명하였다(Samarqandī, 1372Sh./1993: 563).

<sup>13</sup> 그녀는 티무르 사후에 사마르칸트를 차지했던 손자 칼릴 술탄(Khalīl Sulṭān)에 의해 셰이크 누르 앳 딘(Shaykh Nūr al-Dīn)이라는 아미르와 재혼했다. 이후 그가 사망하고 샤무르흐가 세력을 얻게 되자 헤라트로 와서 과거 티무르로부터 수여 받은 자신의 영지인 쿠산에 머무르며 마드라사와 모스크 등을 건설했는데, 그녀가 건설한 건물이 이슬람력 844년(1440~1441)에 세워진 것을 감안할 때 그 후에 사망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Khānikūf, 1375Sh./1996~1997: 135).

하기 위함이었는데, 티무르조와 같이 순례 자체가 쉽지 않은 국가에서는 순례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티무르조는 전술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순례 카라반을 파견한 적도 없고 선례도 충분치 않은데다, 카라반을 파견할 만한 경로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당시 순례 카라반의 경로는 대부분 맘룩조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시기에 맘룩조는 메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국이 운영하는 순례 카라반에 대한 통제와 강도도 높여 나가고 있었다. 전술했듯이 티무르가 바그다드에서 카라반을 파견한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맘룩조는 카라반을 조사하여 후라산 인들을 탐문하였다.<sup>14</sup> 이후 샤루흐가 맘룩조로 사신을 파견하여 덮개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자, 맘룩조에서는 메카에 주둔군을 파견하고, 제다에서 순례자들에게 관세를 물리기도 했다. 그러므로 티무르조가 메카 내에서 자국의 종교적 위상을 제고하는 상징적인 성과를 추구하기보다, 자국 순례단이 안전하게 순례의 전 과정을 완수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면 맘룩조와의 평화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sup>15</sup>

이라크-아제르바이잔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역시 티무르조로 하여금 맘룩조와 평화관계를 맺게 하였다. 티무르조는 티무르 재위 시기에 이라크-아제르바이잔을 장악했으나, 그 이후에는 이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는 잘라이르조와 코윤루 세력이 있었고, 샤루흐의 주요 대외 원정은 주로 이들을 향한 것이었는데, 이들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맘룩조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다. I장에서 보았듯이 메카 순례는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으므로, 순례 관련 정책도 정치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했던 것이다. 맘룩조

<sup>14</sup> 타국 순례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오스만조에서 더욱 철저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오스만은 자국의 영역에서 자주 이탈하는 이라크의 카라반을 폐지했으며, 자국 영토를 거쳐 가는 순례자들의 입·출경에 대해 철저히 기록했다.

<sup>15</sup> 『양성의 상승과 두 바다의 만남(Matla' Sa'dayn wa Majma' Bahrayn)』에서는 이슬람력 847년(1443~1444)에 덮개(Zāmi-yi barā-yi Bayt-i allah)를 파견하기 위해 사신을 임명하면서, 이것은 이집트 술탄의 허락(Rukhṣat)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서술하였다. 같은 책에서 이슬람력 843년(1039~1040)에 도달한 이집트의 사신을 '충성을 드러내기 위한(Izhār-i Ikhlās)' 사신이라 표현할 정도로 맘룩조를 비하하는 와중에도, 메카에 대한 이집트의 영향력만큼은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Samarqandī, 1372Sh./1993: 532).

와의 평화 노선은 샤루흐 이후에도 이어져, 티무르조를 재통일한 아부 사이드 미르자(Abū Sa'īd Mīrẓā)는 세 차례에 걸쳐 맘룩조로 사신을 보내어 순례단의 안전 보장을 요청했다.

아부 사이드가 아크코윤루와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살해된 후, 후라산에서 등극한 후세인 바이카라(Husayn Bāīqarā) 또한 메카 순례를 위한 평화노선을 취했다. 다만 그의 시대에는 새로운 변수가 있었는데, 아부 사이드가 아크코윤루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살해된 후 티무르조는 호르무즈를 포함한 이란 중서부를 완전히 상실했고, 아크코윤루가 그곳을 확고하게 장악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티무르조의 강역에서 메카까지 가기 위해서는 육로든 해로든 간에 반드시 아크코윤루의 강역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시기에 아크코윤루 또한 맘룩조처럼 자국 영내에 들어온 순례자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일부 순례자의 메카 행을 거부하기까지 했으므로, 순례가 문제없이 이루어지려면 아크코윤루와의 우호관계 또한 필수적이었다. 이에 후세인 바이카라는 아크코윤루의 우준 하산(Ūzūn Ḥassan)과 우호관계를 맺어 순례길을 유지하였다.<sup>16</sup> 후세인 바이카라와 우준 하산의 우호관계는 16세기 후반에 우즈벡의 헤라트 총독이 사파비조의 샤 압바스(Shāh 'Abbas)에게 파견했던 서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즈벡의 헤라트 총독은 종파가 다른 사파비조와의 끈끄러운 관계로 인해 16세기 중반부터 이란을 통과하는 순례길이 닫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샤 압바스에게 서신을 파견했는데, 이때 서신에는 “후세인 바이카라와 우준 하산 시절로 돌아가 순례객과 여행객을 위한 길의 안전을 도모하자”고 기록되어 있었다 (McChesney, 2003: 146).

정리하면 티무르조의 샤루흐는 아부 사이드 칸의 정책을 본받아 ‘두 성지의 보호자(Khādīm al-Ḥaramayn al-Sharīfīn)’인 맘룩조의 히자즈에 대한 우위를 인정함으로써 순례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먼 곳에 위치한 티무르조의 주민이 안전하게

<sup>16</sup> 본문에서는 메카 순례에 초점을 맞추어 티무르조와 아크코윤루의 우호관계의 원인을 메카 순례에서 찾았으나, 순례, 특히 카라반을 통해 이루어지는 순례는 필연적으로 대외무역을 수반하기 때문에 무역 촉진의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 본다. 또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크코윤루의 경우 서쪽에 위치한 오스만조의 위협을 막는 것이 우선이었고, 티무르조의 경우 동북부의 우즈벡 세력을 막는 것이 긴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양국의 우호관계에는 다양한 측면의 원인이 있었다.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를 통과한 후 맘룩조가 운영하는 카라반을 이용해야 했으므로, 순례 활성화를 위해서는 메카의 아미르 샤리프보다는 메카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여러 국가와의 우호관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티무르조는 맘룩조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순례의 걸림돌이 되는 외교 방면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티무르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자국민의 메카 순례를 촉진하고자 했는데, 그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 III. 티무르조의 메카 순례 부흥을 위한 제도적 노력

이처럼 티무르조에서 메카 순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티무르조의 순례자들은 어떤 경로로 순례했을까. I장에서 언급한 티무르조 성립 직전의 사례를 보면 이슬람권 동부 각 지역의 주민들은 슈시타르에 집결하였다가 바그다드로 향했는데, 이와 비슷한 듯 다른 경로가 시라즈를 통과하는 경로다. 이 길을 통한 순례는 티무르조가 아직 이란을 장악하지 못했던 14세기 후반, 이란 중남부의 무자파르 조가 시라즈를 수도로 삼았던 때부터 나타난다. 예를 들어 무자파르조의 군주 샤 슈자(Shāh Shujā') 시기 후라산의 유명 수피인 자인 앓 딘 아부바크르 타이바디(Zayn al-Dīn Abūbakr Tāybādī)가 시라즈를 거쳐 히자즈로 향하는 도중에 유명 시인인 하피즈 시라지(Hāfiẓ Shīrāzī)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으며 (Khwandamir, vol. 3, 1994: 316), 헤라트 근교 출신이었던 마울라나 루큰 앓 딘 무함마드 카와피(Mawlānā Rukn al-Dīn Muḥammad Khwāfī) 역시 후라산에서 이라크, 파르스를 거쳐 순례를 했는데, 샤 슈자가 그에게 자신의 어전에 방문하도록 여러 차례 요청했고, 마울라나는 온갖 감언이설로 그를 설득하여 겨우 허락을 받고 히자즈로 떠날 수 있었다고 한다(Khwandamir, vol. 4, 1994: 8). 이 길은 슈시타르를 통과하는 길과 마찬가지로 이라크로 이어지지만 후라산의 주요 도시나 슈시타르에 비해 비교적 남쪽에 위치하는데, 이들이 굳이 시라즈를 통과했던 이유는 무자파르조부터 티무르조 시기까지 이란 중남부의 정치적 중심지가 시라즈였기 때문이다.

14세기 말에 티무르가 아제르바이잔과 아나톨리아 동부까지 영토를 확장하

면서, 동부 무슬림들에게 이라크뿐 아니라 시리아로 통하는 순례길도 열리게 되었다. 샤루흐가 맘룩조와의 평화협정 후에 파견한 카라반은 갈 때도 시리아 순례단에 합류했으며, 돌아올 때도 시리아-아제르바이잔을 통해 귀국했다.<sup>17</sup> 이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 원정과 코윤루 세력 진압에 전력을 기울였던 샤루흐가 파견한 공식 카라반의 경로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전술한 파르스(시라즈)-이라크 경로와 아제르바이잔-시리아 경로가 동시에 이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15세기 전반, 샤루흐 시기에 활약했던 두 종교인인 호자 하산 아타르(Khwāja Ḥassan ‘Aṭṭār)와 셰이크 무히 앓 딘 무함마드 알가잘리(Shaykh Muḥī al-Dīn Muḥammad al-Gazālī)의 경우, 전자는 순례를 위해 시라즈까지 왔다가 사망했으며, 후자는 알레포까지 왔다가 부근에서 사망했다(Khwandamir, vol. 4, 1994: 6). 한편 오스만 강역을 통해 순례하는 이들도 있었는데,<sup>18</sup> 이 길은 16세기 초에 오스만이 맘룩조를 멸망시킨 후에는 중앙아시아인들의 주요 순례 경로 중 하나가 되었다(McChesney, 2003: 143).

이 외에도 바닷길 경로 또한 확인된다. 1440년 순례를 이끈 헤라트의 셰이홀 이슬람 바하 앓 딘 우마르의 외삼촌 셰이크 무함마드 파라히(Shaykh Muḥammad Shāh Farāhī)의 경우, 호르무즈에서 메카로 향하다가 호르무즈 근방의 미누잔에서 사망했다고 한다(Samarqandī, 1372Sh./1993: 58). 셰이크 무함마드 파라히가 언제 순례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티무르가 1396년 초에 손자인 무함마드 술탄(Muḥammad Sulṭān)으로 하여금 호르무즈와 해안 도시들을 점령하여 호르무즈의 말릭인 무함마드 샤(Muhammad shāh)의 복속을 받았고(Yazdī, 1387Sh./2008~2009: 853), 샤루흐 시기에도 호르무즈에서 세금을 거두거나 호르무즈의 알리가 왕래하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14세기 말부터 티무르조의 순례자가 호르무즈를 통해 바닷길로 메카를 방문하는 일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샤루흐가

<sup>17</sup> 이들은 귀국길에 카즈빈의 나크바(Nakhba) 대문에서 셰이크 아흐마드 가잘리의 성묘를 순례하다가 그곳에서 바이순구르의 아들 미르자 술탄 무함마드가 이라크를 통치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보고했다(Khwandamir, vol. 3, 1994: 630).

<sup>18</sup> 오스만조의 바야지드 2세가 압드 알라흐만 자미에게 두 차례 서신과 예물을 제공한 적이 있는데, 이때 자미는 두 번째 서신의 답변으로 순례를 떠났던 티무르조 출신 다르비시 무함마드 바닥 시가 오스만의 강역을 방문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를 돌봐줄 것을 부탁했다(Nur-Aḥrārī, 1383Sh./2004~2005: 270).

맘룩조에 보낸 서신 중에 제다의 관세에 대해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호르무즈에서 제다로 향하는 배편을 티무르조 주민이 이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부 순례자들은 이집트로 넘어가 그곳에서 카이로 카라반을 따라가기도 했다. 톱카프 궁전 도서관에서 발견된 한 오스만 역사서에는 저자인 사이드 미르 알리 투시(Mir 'Alī Ṭūsī)의 여행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그 여행기에 따르면 그는 15세기 후반에 고향인 마슈하드를 출발하여 마잔다란을 거쳐 타브리즈까지 갔다가 바그다드로 향했고, 그곳에서 나자프와 카르발라를 순례한 후<sup>19</sup> 다마스쿠스로 향하여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거쳐 이집트로 향했다가, 그곳에서 카이로 카라반을 따라 메카로 향했다(Woods, 2020: 81-82). 한편 후세인 바이카라의 외조카인 무함마드 술탄 미르자(Muḥammad Sulṭān Mīrzā)는 아크코윤루의 수도였던 타브리즈로 갔다가 그곳에서 이집트로 간 다음, 그곳에서 히자즈로 출발했다(Khwandamir, vol. 4, 1994: 174-175). 그리고 그의 가신이었던 아미르 카말 앓 딘 후세인 아비바르디(Amīr Kamāl al-Dīn Ḥusayn Abīvardī)는 자신의 주군이 순례를 떠날 때 따라가지는 못했으나 뒤늦게 주군을 따라 순례를 떠났는데, 그의 경우 타브리즈에서 콘스탄티노플까지 향했다가 시리아로 들어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보고, 카라반을 따라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카이로 카라반에 합류하여 메카로 향했다(Woods, 2020: 85-86).

이처럼 티무르조의 순례자들은 국가가 앞장서서 구축한 타국과의 평화관계에 힘입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순례를 행했다. 그런데 순례자가 순례를 결심하기만 하면 순례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몇몇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순례자들은 국가에서 순례 허가를 받아야 했다. 티무르조 말의 대재상인 알리 시르 나바이(Alī Shīr Navā'ī)의 경우, 군주인 후세인 바이카라에게 수차례 순례 허가를 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sup>20</sup> 물론 이것은 국가의 중책을 맡은 재상을 보낼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으나, 그와 같은

<sup>19</sup> 나자프는 이맘 알리의 무덤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성묘가 있고, 카르발라는 이맘 후세인이 우마이야조 칼리파 무아위야의 군대에 의해 순교한 장소이므로 이슬람, 특히 시아파의 주요 순례지다.

<sup>20</sup> 알리 시르 나바이는 1500년에 마침내 후세인 바이카라로부터 순례의 허락을 받은 후, 술탄에게서 '여행 칙령(Travel Decree)'을 받았다(Tanieva, 2022: 1756).

주요 관료가 아니더라도 국가의 허락을 받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전술한 1472~1474년 순례단을 이끌었던 자미의 전기에 따르면, 술탄 후세인이 자미를 수행할 수행원들에게 순례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그들이 만나게 될 지방 통치자들에게 소개장을 작성해 주었다고 한다(Losensky, 469-475). 이것은 일견 허락의 차원이기보다는 순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군주의 호의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자미가 알리 시르 나바이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국가에서 순례자들에게 제공한 문서가 단순한 소개장이 아니라, 순례를 위해 행정상 꼭 필요한 서류처럼 묘사된다. 그중에 한 서신에 따르면 자미는 순례길에서 사이드 무함마드 마즈둡(Sayyid Muḥammad Majdhūb)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자는 순례에 대한 큰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미가 이끄는 카라반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이에 자미는 알리 시르 나바이에게 상황을 전하고 최대한 좋게 처리해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 사실 이때 자미의 카라반은 이미 순례를 떠난 상황이므로, 자미가 후세인 바이카라로부터 소개장을 받았다면 카라반에 한 사람쯤 포함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미는 헤라트에 있는 알리 시르 나바이에게 서신을 보내어 그의 합류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렇다면 알리 시르 나바이가 그의 합류를 위해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사이드 무함마드 마즈둡은 자미에게 “나에게 필수적인 것(Muḥammāt)들을 준비하여 빨리 파견하도록 요청하라. 나는 빨리 준비하여 카라반에 합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Ūrunbāyf, 1364Sh./1985-6: 82). 이 서신에서는 순례자에게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으나, 자미가 성지순례와 관련하여 알리 시르 나바이에게 파견한 또 하나의 서신을 통해 ‘Nishān-i Rāh’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미는 또 다른 서신에서 호자 자말 앓 딘 아탈라(Khwāja Jamāl al-Dīn ‘Aṭā’illah)라는 종교인이 메카 순례를 행할 역량을 갖추어 순례를 하고자 하니, ‘Nishān-i Rāhī’를 얻기를 원하고 있다고 썼던 것이다(Ūrunbāyf, 1364Sh./1985~1986: 116).

니산(Nishān)이란 본래 서명, 인장 등을 의미하며, 거기에서 의미가 파생되어 서명이나 인장을 지닌 문서를 의미한다. 본래 페르시아어였으나 나중에는 투르크어, 몽골어, 오스만어, 아랍어에도 차용되어 오스만이나 카자르조와 같은 여

러 근세 무슬림국가에서도 사용되었는데, 티무르조는 이것을 ‘재상들의 관례에서 인장을 지닌 문서나 허가증’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Matsui et al., 2015: 62). 자미가 이것을 알리 시르 나바이에게 부탁한 이유는 재상인 알리 시르 나바이가 이 문서를 발급하는 담당 관료였기 때문이다. 자미는 Nishān-i Rāh를 얻으면 ‘어디로 출발을 결정하든, 어떠한 장애도 없을 것이다.’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으로 보아 이 문서는 여행자들의 통행을 허가하고 보증하는 공식문서임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티무르조 후기의 문서모음집 중에 압둘라 무르바리드(‘Abdullah Murvārid)의 문서 모음집에 4개의 Nishān-i Rāh-i Ḥajj/Ka‘ba가 존재한다. 압둘라 무르바리드는 알리 시르 나바이와 친밀했던 서기이며, 특히 인장(Muhr)을 관리했다. 이 문서들은 대체로 비슷한 구조를 띠는데, 문서의 종류(Nishān-i Rāh-i Ḥajj/Ka‘ba), 문서를 발급받은 인물, 신에 대한 찬양, 문서를 발급한 이유(발급인이 메카 순례를 청원하여, 군주가 이것을 허락함), 순례자가 해당 문서를 보여 줄 지방관리(군주의 자녀들, 아미르들, 하킵들, 다루가들, 도시의 귀족과 아얀들, 수장들과 지식인들과 유명 인사들, 즉 칼탄타르나 부족장 같은 무리들, 길과 관문, 변경을 감시하는 이들과 정보수집가 등등)가 순례자에게 취해야 할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 조치의 내용은 그를 환대하여 안전히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위험한 지역에서 그를 호송하는 것, 경의와 공경으로 대하고 돌봐주는 것, 그리고 누구도 그와 그의 일행·가족을 취하지 않는 것이었다(Kirmānī, 1398Sh./2019~2020: 21-27, 115-117).

이 문서를 발급받은 인물은 니잠 앓 딘 아흐마드 타바콜 바룰라스(Nizām al-Dīn Aḥmad Tavakul Barlās), 무함마드 무킵 카이쿠스라위(Muḥammad Muqīm Kaykhusrawī), 마울라나 알라 앓 딘 키르마니(Mawlānā ‘Ala al-Dīn Kirmānī), 마울라나 아흘리 샤이르(Mawlānā Ahlī Sha‘ir)이다. 전자의 두 사람은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관료들로, 전자는 바룰라스 부 출신의 가신(Mulāzim)이고 후자는 왕궁과 관련된 자(Muntasib)로서 어릴 적부터 줄곧 왕궁에서 봉사했던 인물이다. 반면에 후자의 두 사람은 종교지식인인데, 그중에서도 키르마니는 국가와 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으나 샤이르는 오랫동안 군주의 핵심 집단(Majlis) 주변에 있으면서 티무르 왕가를 위해 기도했던, 조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종교인이었다. 이처럼 관료이든 종교인이든, 조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든 그렇지 않든 순례를 떠나기에

앞서 이와 같은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한편 비슷한 구조를 지닌, 그러나 목적지가 메카가 아니라 카르발라인 문서도 존재하는데, 이 문서 역시 메카 문서와 구조가 유사하다. 다만 문서를 보게 될 지방관리 중에 가장 앞부분이 고위관료가 아닌 사이드와 카디들, 와크프 관리인, 셰이크 등 종교인이라는 점이 독특하며, 역참 및 역참호(Yānchīyān)에게 내리는 지시라던가, 그의 가족에게 건초와 먹이를 주라는 직접적인 조치 내용이 등장한다(Isfizārī, 1398Sh./2019~2020: 87-89). 앞서 살펴본 네 개의 메카 문서에도 ‘그로 하여금 통로, 길, 역(Manāzil), 정차 장소(Marāḥil)을 건강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라거나, ‘관용건물(Baqā’-yi Khayr)과 기도소(Khānqā)의 담당자 및 감독관은 그에게 경의와 식사제공을 의무로 여겨, 출입의 방식으로 어디에 도달하든 그를 도와주어라.’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순례자들은 역참을 비롯하여 국가에서 건설한 여러 건물 및 종교건물을 이용하고 그곳에서 물자를 얻는 것을 보장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군주가 제공하는 문서는 순례길에서의 안전과 환대, 그리고 숙소와 물자 등을 보장하는 증서였기 때문에 순례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앞서 나시르 쿠스라우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순례길은 기후와 자연환경과 곳곳에 도사린 도적떼, 국가 간의 전쟁이나 긴장 관계, 지역 분쟁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점철된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문서 없이 순례를 떠난 사례를 살펴보면 그 어려움은 더욱 명확하다. 후세인 바이카라가 고위 재정관료였던 호자 마즈드 앳 딘 무함마드(Khwāja Mazd al-Dīn Muḥammad)를 실각시키고 키밤 앳 딘 니잠 알 무크(Qivām al-Dīn Nizām al-Mulk)를 기용했을 때, 호자 마즈드 앳 딘은 감옥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일정량의 재산을 헌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약속된 금액을 헌납하는 대신에 투르크인들을 고용하였고, 몰래 어떤 프랑크(Farank)인 무리와 더불어 키르만의 황야를 거쳐 히자즈로 달아났다. 그는 아라비아 반도 북부의 타부크까지 나아갔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처럼 나산 문서가 없는 경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용병을 고용해야 했고, 정식 길을 이용할 수 없어 황야를 헤매야 했다. 반면에 아미르 니잠 앳 딘 다르비시알리(Amīr Nizām al-Dīn Darvīsh’alī)는 마즈드 앳 딘과 같은 시기에 군주의 신임을 잃었지만, 그와는 달리 군주에게 순례의 허락(Rakhṣat-i Hījāz)을 얻어 메카를 방문했고, 돌아와 다시 등용되었다

(Khwandamir, vol. 4, 1994: 198). 이처럼 군주의 허락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순례 결과는 사뭇 달랐다.

이처럼 티무르조는 공식 문서를 제공하여 순례자들이 오가는 길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물자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순례자인 메카에서도 자국 순례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는 메카를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것인데, 이슬람권의 자선 제도인 와크프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샤루흐는 1442년 서신에서 덮개 제공과 더불어 티무르조 영내에 자리한 성지의 와크프에서 거둔 물자를 메카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했으며(Dekkiche, 2014~2015: 254), 1446년에는 메카에서 징수관이 티무르조로 와서 와크프의 액수를 조사했다(Samarqandī, 1372Sh./1993: 590). 약 20여 년 전만 해도 샤루흐는 메카의 아미르 샤리프의 자금 요구를 거절했으나, 이제는 먼저 메카에 자금 제공을 제안한 것이다.

메카와 메디나 내부를 비롯하여 이슬람권의 각지에는 두 성지를 위해 설정된 와크프를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을 ‘두 성지의 와크프(Waqf al-Haramayn)’라 부른다. 각 와크프마다 언제 설정되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누가 관리하고 수익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메카의 여러 건축물 및 순례 기반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데에 비용을 대거나, 와크프를 봉헌한 군주나 고위 관료의 출신국 순례자들에게 의식주 및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사용되었다(Bilge, 2020: 65-68).

티무르조 영내에 위치한 두 성지의 와크프는 후라산의 도시 안드후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곳은 티무르의 스승인 사이드 바라카(Sayyid Baraka)와 관계되어 있다. 15세기 전반 역사서인 『역사의 정수(Zubdat al-Tawārīkh)』에 따르면 사이드 바라카는 티무르를 처음 만나기 전에, 메카와 메디나의 와크프에서 생산되어 신의 몫으로 할당된 물자(Mūqūfāt, 와크프에서 발생한 물자)를 요구하기 위해 당시 카불의 지배자였던 카라우나스 부의 아미르 후세인(Amīr Ḥusayn)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가 물자를 주지 않자, 근처에 와 있던 티무르에게 가서 그에게 북과 깃발을 헌상하며 합류했다고 한다(Abrū, vol. 1, 1380Sh./2001: 440).

같은 사건에 관해 같은 시기의 역사서인 야즈디의 『승전기(Zafar nāma)』에는 두 성지의 와크프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사이드 바라카가 메카의 귀족 중에 높

은 인물이고 사이드들의 첫 번째라고 하였다(Yazdī, 1387Sh./2008~2009: 390). 이와 비슷한 표현은 티무르 당대에 작성된 사미의 『승전기』에도 등장한다. 이들 기록을 종합해 보면 사이드 바라카는 메카 출신의 사이드로 티무르조 이전부터 후라산에서 두 성지의 와크프로 설정되어 있었던 곳의 물자 출납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16세기 초의 역사서인 『전기들의 빛』은 『역사의 정수』와 동일한 기록 뒤에, 티무르가 메카와 메디나의 와크프를 그에게 사여했다는 기록을 덧붙였다(Khwandamir, vol. 3, 1994: 415-416). 그러나 이 시기에 안드후드는 티무르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았으므로 안드후드의 사여는 이때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아랍의 역사가 이븐 아랍샤(Ibn ‘Arabshāh)의 기록을 보면 이 사여는 1391년 티무르의 킵차크 원정 당시 사이드 바라카가 기적을 일으켜 티무르의 목숨을 구한 대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Arabshah, 1936: 14-15). 또한 20세기 후반에 발견된 사이드 바라카의 아들, 샴스 앳 딘 하이다르(Shams al-Dīn Ḥaydar)의 무덤 비문에서 사이드 바라카의 조상이 마와라안나흐르의 옛 종교도시인 나흐사프 출신이라는 점이 밝혀졌다(Muminov et al., 2001: 28-62). 이를 종합해 볼 때 사이드 바라카는 원래부터 메카와 관계있는 인물은 아니었고, 마와라안나흐르의 유력한 사이드 출신으로 초창기부터 티무르의 진영에 합류했는데, 티무르를 구하는 큰 공을 세워 안드후드의 와크프를 관리하는 자로 임명된 이후 그의 출신에 관한 은근한 윤색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와크프는 티무르조 말기의 후세인 바이카라 시대까지 이어졌는데, 사이드 바라카의 자손들이 줄곧 관리했다. 또한 메카에서 와크프 담당자들이 안드후드로 와서 정해진 금액을 거두어 가거나, 티무르조에서 금액을 거두어 파견하기도 했다(Isfizārī, 1338Sh./1359~1360: 171).

앞서 학자 데키체는 티무르조가 자국민의 순례 활성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티무르조가 아미르 샤리프의 요구를 받아들여 후원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티무르조는 메카의 아미르 샤리프가 자금을 요구할 때는 주지 않았지만, 맘룩조와의 평화관계가 정립되고 티무르조에서 파견한 순례단이 왕래하기 시작하자 자국 내 와크프에서 확보한 수익을 전달했다. 이 역시 티무르조가 맘룩조와의 평화관계를 전제로 하여 순례를 활성화하고자 했음을 보여 준다.

티무르조가 멸망한 16세기 초부터 중앙아시아인들의 메카 순례에 관한 사료 및 연구가 이전 시대에 비해 증가한다. 이는 성지의 보호자였던 오스만조가 순례자에 관한 기록을 철저히 남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슬람권 국가가 메카 순례를 어떻게 유지하면 좋은지에 관해 티무르조에서 순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후속국가가 이를 본받아 메카 순례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메카로 향하는 육로와 해로를 열어놓고, 순례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 길목에 있는 여러 타국과 외교관계를 체결하고, 자국은 물론 타국에서도 명망 있는 종교인이 이끄는 순례단을 운영하는 등 티무르조에서 행했던 메카 순례를 위한 여러 노력은 그 이후 시기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이슬람권의 최대 성지인 메카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했던 이슬람 국가인 티무르조가, 메카 순례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본 연구다. I장에서는 티무르조 이전에 이슬람권 동부 주민들의 순례 경로에 관한 몇 가지 사료를 살펴보았는데, 순례 경로의 흥쇠(興衰)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메카와 그 주변국의 정치적 상황 및 외교관계에 크게 좌우되었다. 일례로 『여행의 서』가 작성된 11세기 중반에 압바스조가 약화되고 파티마조가 들어서 메카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자, 이라크와 메카를 연결하는 순례길의 카라반이 운영되지 않았고 인프라도 크게 파괴되었다. 한편 십자군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했을 때에는 시리아 카라반과 이집트 카라반의 육로가 막혔으며, 『히자즈로의 여행기』가 작성된 14세기 중반에는 홀레구 울루스의 멸망과 이란의 분열, 그리고 맘룩조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다시금 이라크 카라반의 길과 인프라가 크게 황폐화되었다. 이를 통해 순례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II장에서는 15세기 티무르조에서 자국민의 순례 활성화를 위해 맘룩조와 평화관계를 맺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티무르조의 샤루흐가 20년 동안 맘룩조에

수차례 사신을 보내어 카오바에 덮개를 걸겠다고 주장한 사건은, 과거에는 티무르조가 맘룩조의 ‘두 성지의 보호자’라는 위상에 도전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티무르조는 외부 덮개가 아닌 내부 덮개를 요구하여 맘룩조의 우위를 인정하였고, 맘룩 술탄도 티무르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양국 간의 평화관계가 맺어졌다. 그런데 이는 티무르조가 순례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티무르조처럼 메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한 국가에게는 메카로 향하는 주요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맘룩조와의 평화관계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아부 사이드 칸의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III장에서는 티무르조에서 순례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또 다른 조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티무르조는 공식문서 ‘Nishān’을 발행하여, 이것을 지닌 순례자가 지방 관료 및 종교인, 역참 관리자 등에게서 안전과 물자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국내외에 메카를 위한 워크프를 설정하여 그에서 얻은 수익을 메카에 파견했는데, 이 워크프는 워크프를 봉헌한 자의 출신국 순례자들이 메카에서 물질적 도움과 안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다. 이러한 티무르조의 노력으로 인해 티무르조에서는 중앙아시아 정권 최초로 순례 카라반이 등장하는 한편, 개인 순례 또한 이전에 비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이 순례자들은 메카로 향하는 여러 경로 중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순례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투고일: 2024년 2월 15일 | 심사일: 2024년 3월 5일 |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28일

## 참고문헌

- 김능우. 2023. “중세 이슬람 시대 국가의 순례 관리에 관한 연구: 정통 칼리프 시대부터 압바스조 시대 말까지.” 『중동문제연구』 22(2): 93-123.
- Bilge, Mustafa Lutfi. 2020. “A Waqf (Foundation) Document Dated 1025/1616 by the Ottoman Sultan Ahmed I Related to Haramayn.” *Journal of Islamic Review* 10(1): 65-68.

- Brett, Michael. 2017. *The Fatimid Empire: The Edinburgh History of the Islamic Empires*. Edinburgh University Press.
- Dekkiche, Malika. 2014-5. "New Source, New Debate: Re-evaluation of the Mamluk-timurid Struggle for Religious Supremacy in the Hijaz." *Manlūk Studies Review* 18: 247-272.
- Faroqhi, Suraiya. 1994. *Pilgrims and Sultans: The Hajj under the Ottomans 1517-1683*. London and New York: I. B. Tauris.
- Jomier, J. 1991. "MAḤMAL." In *The Encyclopaedia of Islam* 6, Second Edition, C. E. Bosworth et al. eds. Leiden: E. J. Brill. 44-46.
- Kamali, Maryam. 2023. *Social Change in Medieval Iran 132-628 AH (750-1231AD): The Perspectives of Persian Historiography*. Amsterdam University Press.
- Losensky, Paul. "Jāmi." <https://www.iranicaonline.org/articles/jami-i>(검색일: 2024. 1. 29.).
- Manz, Beatrice Forbes. 2007. *Power, Politics and Religion in Timurid Ir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sui, Dai; Ryoko Watabe; Hiroshi Ono. 2015. "A Turkic-Persian Decree of Timurid Mīrān Šāhof 800 AH/1398 CE." *Orient* 50, 53-75.
- McChesney, R. D. 2003. "The Central Asian Hajj: Pilgrimage in the Time of the Early Modern Empires." in Michel Mazzaoui, ed. *Safavid an and Her Neighbors*. Salt Lake City: The University of Utah Press.
- Melville, Charles P. 1992. "'The Year of the Elephant.' Mamluk-Mongol rivalry in the Hejaz in the reign of Abu Sa'id (1317-1335)." *Studia Iranica* 21(2): 197-214.
- Mortel, Richard T. 1987. "Zaydi Shiism and the Hasanid Sharifs of Mecca."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19(4): 455-472.
- Muminov, Ashirbek and Bakhtiyar Babadzhanov. 2001. "Amir Temur and Sayyid Baraka." *Central Asiatic Journal* 45(1): 28-62.
- Nasab, Dāwud Kāzīmī et al. 2016. "Jāyghāh, Naqsh wa Ahammiyyat-i Amīr al-Ḥājji dar dawra Siljūqī." *Tārīkh nāma-yi Irān ba'd az Islām* 13: 137-159.
- Peters, F. E. 1994. *The Hajj: The Muslim Pilgrimage to Mecca and the Holy Plac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emer, Hans Robert. 1952. *Staatsschreiben der Timuridenzeit: Das Saraf-Nama des 'Abdallāb Marwārīd in Kritischer Auswertung*. Wiesbaden: Franz Steiner

Verlang GMBH.

- Sato, Tsugitaka. 2014. *Sugar in the Social Life of Medieval Islam: Islamic Area Studies*. Leiden, Boston: Brill.
- Tanieva, Gulzona M. 2022. "The Use of Travel Permits by Central Asian Pilgrims in the Xv-Xix Centuries." *Journal of Positive School Psychology* 6(3): 1755-1764.
- Woods, John. 2020. "The Timurid Century: Two Later Ninth/Fifteenth Century Iranian Travellers." in Charles Melville, ed. *The Timurid Century: The Idea of Iran* 9. New York: I. B. Tauris.

#### 〈1차 사료〉

- Abṛū, Ḥāfiz. 1380Sh./2001. *Zubdat al-Tawārīkh*, 4 vols., Sayyid Kamāl Ḥajj Sayyid Jawādī. ed. Tehrān: Sāzman-i chāp wa Intisharāt-i Wizarāt-i Farhang wa Irshād-i Islāmi.
- al-Ashraf, Abū. 1989, "Risāla-yi Ḥijjāziyya." In *Majmū'a-yi Rasā'il-i Ḥaṭī-yi Fārsī* 1. Mashhad: Islamic Research Foundation. 27-45.
- ʿArabshah, Ahmad Ibn. J. H. Sanders tr. 1936. *Tamerlane Or Timur: The Great Amir*. London: Luzac & CO.
- al-Ḥanbalī, ʿAbd al-Qādir al-Jazīrī. 2002. *Al-Durar al-Farā'id al-Munazzama fī Akhbār al-Ḥajj wa Ṭarīq Makka al-Mu'azzama* 2. Beirut: Dar al-Kotob al-ilmīyah.
- Isfizārī, Mu'īn al-Dīn Muḥammad Zamchī. 1338Sh./1359~1360. *Rauzāt al-Jannāt fī Auṣāf madīnat-i Hirāt* 1. Sayyid Muḥammad Kāzim Imām, ed. Tehran: Dānishghāh-i Tehrān.
- Isfizārī, Mu'īn al-Dīn Muḥammad Zamchī. 1398Sh./2019~2020. *Musbāat Isfizārī*, Sayyid Amīr Jahādī Ḥusaynī, ed. Tehran: Kitābkhāna, Mūzih wa Markaz-i Isnād-i Majlis-i Shurā-yi Islāmī.
- Jubayr, Muḥammad ibn Ahmad Ibn. R. J. C. Broadhurst tr. 1952. *The Travels of Ibn Jubayr: A Medieval Journey from Cordoba to Jerusalem*. London: Jonathan Cape.
- Khānīkūf, Nīkūlāy Vlādīmīrūvīch. Aqdas Yaghmayi tr. 1375Sh./1996~1997. *Safarnāmah (Ghuzārīsh-i Safar bi bakhsb-i Junūbī-yi Āsiyā-yi Markazī)*. Mashhad: Mu'asisi-i chāb wa Intishārāt-i Āstān-i Qudus-i razavī.

- Khusraw, Nasir and Wheeler M. Thackston Jr. tr. 2001. *Nasir-i Khusraw's Book of Travel*. California: Mazda Publishers, Inc.
- Khwandamir, Ghiyas al-Din. W. M. Thackston tr. 1994. *Habibu's-siyar, Tome three. The reign of the Mongol and the Turk*. vol. 3-4. Cambridge: MA.
- Kirmānī, Shihāb al-Dīn 'Abdullah Murvārīd. 1398Sh./2019-20. *Munshāat 'abdullah Murvārīd*. Isrā' al-Sāddāt Aḥmadī, ed. Tehran: Kitābkhānah, Mūzah wa Markaz-i Asnād-i Majlis-i Shūrā-yi Islām.
- Narshakhi, Abu Bakr Muhammad ibn Ja'far. Richard N. Frye tr. 1954. *The History of Bukhara*.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ediaeval Academy of America.
- Nur-Aḥrārī, 'Abd al-'alī. 1383Sh./2004~2005. *Risāla-yi Munshāat-i Jāmī*. Shaykh al-Islām Aḥmad Jāmī.
- Samarqandī, Kamāl al-Dīn Abdālrāzāq, 1372Sh./1993. *Maṭla' Sa'dayn wa Majma' Baḥrayn* 3, A. Nava'i ed. Tehran: Mūsasa-yi pazhūhish wa Muṭāli'āt-i Farhangī.
- Ūrunbāyf, 'Aṣām al-Dīn, ed. 1364Sh./1985~1986. *Nāmibā-yi dastnavīs-i Jāmī*. Kabul.
- \_\_\_\_\_. 1982. *Nāmibā-yi dastnavīs-i 'Abd al-Raḥman Jāmī az Muraqqa'-yi 'alī Sbīr Nawāī*. Tashkent: Fan.
- Yazdī, Sharaf al-Dīn 'Alī. 1387Sh./2008~2009. *Zafar nāma*, Sayyīd S'aīd Mīr Muḥammad Ṣādiq ed. Tehran: Markaz-i Asnād Majlis.

## Abstract

## Pilgrimage Routes to Mecca in the 10th-15th Centuries and Timurid Revival Efforts

Juyeon Lee *Kyung Hee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outes of pilgrims from the eastern Islamic world to Mecca in the 10th~14th centuries and the political factors that influenced them, and to examine what measures the Timurid, who controlled the eastern Islamic world in the 14th and 15th centuries, used to promote pilgrimage among their citizens. The pilgrimage of the eastern inhabitants of the Islamic world was highly dependent on the political situation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Mecca and the various countries surrounding it. Timurid Shahrukh exerted strong influence in Mecca and established friendly relations with the Mamluk Sultanate, which established itself as the “protector of the two Holy Cities,” and allowed its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pilgrimage. Moreover, he issued official documents to his citizens guaranteeing their safety on the pilgrimage and the provision of supplies and gave alms using the Waqf system so that they could obtain supplies in Mecca.

**Keywords** | Pilgrimage, Mecca, Timurid Dynasty, Mamluk Sultanate, Kiswa (Cover of Ka’ba)